

◇최소 침투적 복재정맥 적출술이 임상 경과에 미치는 영향

박계현, 채헌, 황경환, 전태국, 박표원, 허정희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

**배경 및 목적** : 관상동맥 우회수술후 복재정맥 적출 부위에 발생하는 여러 합병증은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로의 복귀를 지연시키는 요인의 하나이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재정맥 적출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장기적인 임상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최근 시작된 최소 침투적 수술 방법의 적용에 따른 임상 경과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.

**방법** : 1994년 11월부터 98년 7월까지 복재정맥을 사용하여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시행받고 퇴원한 환자로 1개월 이상 외래 추적이 이루어진 3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이 환자들의 기록을 토대로 복재정맥의 적출 방법, 퇴원 후 창상 합병증의 발생 여부, 이들간의 상관관계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. 합병증은 1주 미만 간격으로 2회 이상 외래 통원 치료를 필요로 하였거나 재입원이 필요하였던 경우로 정의하였다.

**결과** : 총 522.5patient-year의 외래 추적 기간동안 42명[13.1%]에서 하지 창상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[8.1%/patient-year]. 양상별로는 창상 열개[wound dehiscence]가 19례로 가장 많았고 봉와직염[14례], 부종, 창상 감염의 순이었다. 이중 64.3%는 재입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는 퇴원 후 발생하는 수술 합병증중 가장 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 하지 전장에 절개를 하는 전통적인 술식이 적용된 환자들[252명]과 최소 침투적 술식이 적용된 환자들[69명]간 비교한 결과 퇴원 후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각각 15.5%[39명, 8.1%/patient-year ], 4.3%[3명, 7.3%/patient-year]로 차이가 있었으며[p<0.05] 특히 내시경을 이용한 술식이 적용된 환자에서는 1례의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다.

**결론** : 복재정맥 적출에 따른 창상 합병증은 높은 빈도로 발생하며 퇴원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불편을 초래함을 확인하였고 최소 침투적 수술 방법, 특히 내시경을 이용하는 술식은 이런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따라서 최소 침투적 복재정맥 적출술은 단순한 미용상의 장점 이외에도 수술 후 경과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.

책임저자: 박계현(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) 발표자: 박계현(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)